

##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28,

### 사사기 13-16장 삼손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28회기, 사사기 13-16장, 삼손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 에서 삼손의 이야기인 책에 언급된 12명의 사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매우 길고 깊이 있고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판사들과 달리 13장에는 그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있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포함해 16일. 그리고 그의 죽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다른 이들의 죽음보다 훨씬 더 극적입니다.

삼손은 아마도 외부인에게 가장 유명한 사사일 것입니다. 또는 일반 문화에서 사람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아마도 삼손일 것입니다. 그는 상징적이다. 그의 이름은 큰 힘과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12번째 판사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이에요. 그는 기원전 11세기 말, 아마도 사무엘이 왕이 되기 약 50년 전, 실제로는 12세기 말, 1100년대, 아마도 1100년경, 그리고 사울이 기원전 1050년에 왕이 되기 약 50년 전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연대순으로 보면 그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사사기 서문에서 이 이후의 17장부터 21장까지가 실제로 연대순으로 책의 앞부분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지만, 책의 구성, 저자는 대략적인 연대순으로

심사위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문학적인 이유로 최종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독특했습니다.

그의 힘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사들처럼 군대를 이끌지는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그는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삶이 과도하게 얽혀 있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영웅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손은 적과 싸우고 실제적인 접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일부 재판관과는 달리 삼손의 삶은 그들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유형의 블레셋 여자들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으며, 십계명 중 상당수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대신하여 지켜준 나스의 분노 서약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보고 그의 확장된 이야기를 보는 것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 전체의 삶의 비극적인 측면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때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때때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대부분 계속되는 배교의 생애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지도자였던 국가와 똑같습니다.

13장은 삼손의 탄생에 관한 장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대사사처럼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진술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삼손의 부모와 그의 탄생과 사명을 알리는 주님의 천사 사이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도자로서 삼손의 부르심에는 이전의 다른 사사들보다 하나님과 그의 천사가 삼손을 대신하여 훨씬 더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는 여호와와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임인데도 그 모습은 오히려 굉장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돌아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고 합니다. 아주 굉장해요. 내가 그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아니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것은 여기서 삼손의 탄생에 대한 소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5절의 마지막 부분인 5절에는 천사들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지시하면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녀는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 면도칼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사명은 분명히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헌신하고 있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에 대한 동의나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실인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나실인의 서약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민수기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서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민수기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 장에서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민수기 6장의 전체 장은 나실인의 서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자신을 주님께 구별시킨 다음, 계속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의 기준을 알려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처음부터 몇 가지 사실을 알아봅시다. 우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일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서약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세요. 자, 여기에 당신이 해야 할 서약이 있다고 명시한 이전 법안은 없습니다.

레위기 앞부분인 처음 일곱 장에는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명령받은 다양한 제물과 희생 제물이 나옵니다. 유월절, 안식일, 초승달, 추수절 등 그들이 지키도록 명령받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누구에게나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할 때마다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실인, 나지르인, 나지르라는 단어는 분리된 것, 성별된 것, 그런 의미의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2절 끝에 있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이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때때로 신약 시대에 비유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실제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발견되는 것, 즉 금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나 신자들 모두에게 금식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단식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삶의 흐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은 음식 준비나 음식 섭취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별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느낌을 줍니다. 나실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에게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수행해야 할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코올은 없습니다.

그는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다.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말린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술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속이지 말고 사과주를 마셔보세요. 그냥 완전히 멀리하세요.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물론 씨나 껍질이라도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떨어져 계세요. 둘째, 5절에 보면, 자기를 구별하기로 서원한 모든 날에는 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머리를 자르지 마세요.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그 기간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하리라 그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한다. 사도행전의 누가는 어떤 사람이 서원을 이행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가 나실인 서약의 일부로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6절, 그가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만약 그들이 죽는다면 그것은 큰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까운 친척의 죽음, 그들과도 멀리하세요. 만일 그렇게 하면 자기를 더럽히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과의 구별이 그 머리에 있기 때문이라.

구별된 모든 날 동안 그는 주님께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개념은 분리되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성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할 것,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 서약의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이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21절, 이것이 나실인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사사기 6장에서 읽은 내용의 배경입니다. 천사가 '미안해요, 사사기 16장, 다시 미안해요, 사사기 13장'입니다. 마커가 잘못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7절에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태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도록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제 민수기에는 나실인의 서약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예를 보면 아마도 끝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생애 동안 계속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물론 Numbers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삼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삼손이 스스로 이 서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동정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천사와 그의 부모가 그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손이 그의 삶에서 서약의 세 가지 주요 교리를 본질적으로 모두 위반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아버지는 기도를 하고 앞뒤로 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거기서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18절에서 그들이 묻기를 원할 때,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7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에게 “주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이름은 기이한즉 어찌하여 묻느냐 여기서 질문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일부 성경 버전에서는 홀륭하다는 단어를 대문자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표준 버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천사의 이름인가요? 이것은 여호수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니플라웃(niflaot)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니플라웃(Niflaot)은 히브리어로 기적에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와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의 생각이 주님의 천사가 내 이름이 너무 기묘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이름을 알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 고대 세계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권력을 가지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어떤 의미에서 나는 당신보다 훨씬 뛰어나며 당신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기우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꽃이 올라가고 그들은 얼굴을 엮드려 천사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와 영이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시니라 13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곳 땅에서 일종의 블레셋 영토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이곳은 산간 지방이 될 것이고, 여기 아래 빨간색 지역은 남서쪽이며, 이곳은 평평한 해안 평원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청년이자 성인이 된 사무엘의 실제 공적을 보게 됩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4장과 15장은 전체 그룹입니다. 16장은 두 번째 부분이다.

각 부분은 블레셋 사람들의 대량 멸망으로 끝나고 그의 심판에 대한 메모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어보면 첫 번째 부분에서 그가 달성한 다섯 가지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 그는 사자 한 마리를 죽인 다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의 밭을 불태우고, 또 다른 블레셋 사람을 학살한

다음, 그들이 그를 묶은 밧줄에서 탈출하여 그 시점에서 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에서는 다섯 가지 사건과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가자 도시 가자에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자 성문을 들고 수 마일을 탈출했습니다. 그런 다음 Delilah와 함께 그녀는 그를 활줄로 묶고 그는 그로부터 탈출합니다.

그녀는 그를 새로운 밧줄로 묶고 그 밧줄에서 탈출합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베틀로 묶어서 탈출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생애 말기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사건들 사이에는 일종의 대칭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큰 힘의 위업은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임으로써 끝났습니다. 16장, 그 시점에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인 다섯 가지 다른 힘의 위업.

그럼 먼저 14장과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의 에피소드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과 그에 따른 공격과 보복의 순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명백하고 반복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 창세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데 삼손은 14장 1절에서 블레셋 땅의 일부인 딘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하나를 만난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다가가서 이 여자를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아내로 삼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들의 아내를 찾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전통에서 다소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종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 자기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그는 일종의 잘못된 발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나실인의 서원 조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 중

또 다른 하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부모는 블레셋 사람을 칠 틈을 엿보므로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여 이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비뚤어진 욕망을 사용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삼손이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5절, 14장), 그는 젊은 사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6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매 그가 사자를 찢고 내려가서 여자에게 말하더라. 그녀는 자신의 눈에 웅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사자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벌들은 그곳에 벌집을 만들고 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꿀을 마시고 그 꿀을 먹고 길을 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그가 죽은 동물에 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실인 서약의 일부를 어기는 것을 봅니다. 그는 죽은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10절에서 그 여자에게로 돌아가서 삼손은 젊은이들이 그래야 했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음, 히브리어에는 절기나 축제를 뜻하는 여러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술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된 일종의 잔치입니다. 미슈테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술자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실인 서원을 어겨서 술을 넣어 잔치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잔치에서 이것은 삼손 이야기의 유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그곳 사람들에게 그 수수께끼를 제안하며

만약 당신들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면 당신들은 나에게 아마포 옷을 빗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아마포 옷을 빗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먹는 사람에게서 먹을 것이 나옵니다. 강한 것에서 달콤한 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죽인 사자와 획득한 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수수께끼를 풀 수 없고, 남자들은 시합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중심으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와서 삼손에게서 답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와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17절). 분명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잔치가 계속되는 칠일 동안 그분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지쳤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었고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 중간에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쟁기질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와서 나에게 대해 끝장을 내는 것으로 신뢰를 어기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해변을 따라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 성읍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그들에게 빗진 빚을 갚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에 대해 많은 동정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이 떠나 있는 동안 마지막 절인 20절에는 삼손의 아내가 그의 가장 좋은 친구였던 그의 동반자에게 주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결혼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여전히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가장 좋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내 최고의 남자는 결코 나를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삼손의 아내는 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공적 생활의 시작이고 그가 사회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소 논쟁적인 인물이자 다소 양극화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좌우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이미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어요. 15장은 이제 블레셋과의 갈등을 계속하지만, 여전히 보복, 공격, 그에 대한 대응의 순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처음 다섯 구절에서 그는 여우 300마리를 사용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운다.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햇불을 가져다가 꼬리에서 꼬리로 돌리고 꼬리 사이에 햇불을 끼운 다음 들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밭을 밝히고 모든 곡식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어떻게 그것을 성취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아는 나는 그가 여우 꼬리 300마리를 손에 들고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아마도 놓을 새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그가 그런 식으로 성취한 것은 수많은 여우와 파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부터 8절까지 화를 내며 반응했는데... 자, 우선 6절 시작 부분만 보세요.

누가 이런 일을 했나요? 이르되 딘나 사람의 사위 삼손은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의 동무에게 주었음이니라 하더라 그것은 14장의 끝 부분과 조금 다른 그림입니다. 14장은 아내가 그의 뜻에 반하거나 그가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남자에게 주어진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 그가 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진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삼손의 아내와 그의 시종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렸다. 그래서 삼손은 그것을 보고 다시 복수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따라서 보복의 순환은 6절에서 8절까지 더 많은 살인으로 응답합니다.

그는 큰 일격으로 그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쳤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엉덩이가 다리, 다리, 허벅지로 더 잘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레슬링의 큰 갈등에 대한 일종의 이미지가거나 일부 학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 얽혀 있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무자비한 힘은 이런 맥락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은 9절 이하에서 보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9절과 10절에서 유다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11-13절에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으러 가려면 3000명이 필요했습니다. 11절,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삼손이 있는 바위 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에서 그를 이 두 개의 새로운 밧줄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들릴라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그를 새 밧줄로 묶어야 한다고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나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하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밧줄을 끊어 버립니다. 그는 당나귀의 신선한 턱뼈를 가져다가 그것을 사용하여 이 시점에서 1,000명의 남자를 죽였습니다. 신선한 턱뼈는 여전히 축축하고 신선했을 것입니다.

오래되고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매우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작은 시와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여기에 또 다른 작은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나귀 턱뼈로 무더기를 쌓았으니 내가 어찌하여 천 명을 죽였는고. 그리고 끝나면 턱뼈를 버립니다.

그들은 그곳을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의 라마트 라히(Ramat Lah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종의 말장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주님을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지금 매우 목이 말랐다. 이는 삼손의 어떤 유형의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니 이제 내가 목말라 죽으리이까 하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 요청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냥, 최근에 나한테 무슨 일을 해준 것뿐이에요, 하느님? 당신이 나를 구원해줬어요, 그렇죠, 하지만 난 아직도 목마르네요. 나는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다시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땅을 여시고 물이 나오도록 하셔서 상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때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블레셋 여인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삼손의 삶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련의 사건들과 보복과 대응의 순환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얽힌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16장에서 그 내용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삼손이 두 명의 블레셋 여인과 운명적으로 연루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거나 적어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에서 그는 해안 근처 가자 도시의 매춘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 매우 유명한 여인 들릴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의 신에 대한 그의 마지막 복수로 끝납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에는 하나님의 영, 즉 주님의 영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삼손은 사실상 주로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비극적인 인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1절부터 3절까지의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자지구에 삼손이 있는데 그는 매춘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갑니다.

가자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성문에 매복하여 그를 잡으러 그 곳을 에워쌌더라. 밤새도록 조용했는데 삼손은 밤중까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3절). 그리고 한밤중에 그는 일어나 성문의 문들을 붙잡고 끌어 올려 헤브론으로 15마일 이상 걸어갔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깨어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도망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벽 도시였던 이 도시의 성문을 당시로 되돌려 놓는 것은 다소 인상적인 힘의 위업입니다. 그리고 밤의 여행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언덕, 지형은 해안 저지대에서 산으로, 언덕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꽤 가파른 일이군요. 꽤 가파른 일이죠.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다면 해안 지역에서 산으로 쫓겨난 적이 있다면 삼손이 이 문을 등에 지고 걷고 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4절부터 22절까지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두 번째 블레셋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말했듯이 그가 관련된 세 번째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과 함께 자신의 행동을 매우 신중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블레셋의 사회와 문화는 다섯 개의 주요 도시와 다섯 명의 영주, 각 도시의 수장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그녀는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집을 부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미루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고집을 부리고 마침내 그의 힘의 원천을 밝히도록 그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절정기인 20절에서 그는 자신의 머리털을 자르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그가 위반한 나실인 규정 중 세 번째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는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가 아는 첫 번째 것은 그녀가 그에게 어떻게, 6절에서 그의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인데, 그 이유는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어떤 의미에서 그녀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각각은 1,100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마르지 않은 싱싱한 활줄 일곱 개로 나를 묶으라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약하리라(7절)며 그녀를 놀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했고 그녀는 그를 잡기 위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활시위를 부러뜨렸고(9절)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10절에서 그에게 돌아와서 “네가 나를 조롱하였으니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새 밧줄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아까 터뜨린 밧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녀의 사슬을 핵 잡아당기는 것 같지만, 그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를 매복하기 위해 누워서 기다리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그는 쉽게 밧줄을 끊습니다. 다음 13절 이하에서 그녀는 이제 더욱 집요해져서 지금까지 나를 조롱하고 거짓말을 했으니 어떻게 묶일지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 당신이 내 자물쇠를 베틀에 엮으면 나는 무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의 원천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머리카락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 매복 공격이 닥쳐도 그는 여전히 뛰어오르고 그의 머리에 베틀을 부착한 채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5절 이하에서 그녀는 그의 심금을 울리며 “네 마음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네가 나를 조롱하였느니라 등등”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날마다 그를 세게 압박했고, 결국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마침내 자신의 힘의 비결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삭도가 내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니 나는 나실인이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분명히 질투심을 갖고 머리를 잘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잘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을 무시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나실인 서원 조항을 준수하면서 그는 죽은 자를 만졌고 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서약에 대해 일종의 양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것에 충실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마침내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의 비밀을 폭로하고 서약의 세 번째 교리를 포기합니다.

19절, 미안해요, 18절에서 들릴라는 이제 그가 진심이 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줄 돈을 가져오고 그를 잠들게 합니다. 때가 되자 그녀는 그를 깨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강하다고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20절, 20절 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1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관여하셨음을 봅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노리셨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셨고 그는 기본적으로 혼자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점에서 그에게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적어도 삼손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은 그의 포로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따라서 이것은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불길한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들의 하나님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삼손을 끌어내어 진열장으로 삼고 그를 조롱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를 끌고 나오니 남자가 대략 3,000명쯤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삼손은 다시 주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그의 기도가 이기적이지 않고 더 진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죄송합니다,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어 블레셋 사람이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는 집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중앙 기둥을 붙잡고 그 위에 자신의 무게를 실어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블레셋 영토에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고 일부 사원과 성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한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앞에 있으며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려가 장사되었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 절 다음 절인 30절에는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 동안 죽인 사람보다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삶. 그러므로 삼손의 삶은 비극과 승리가 혼합된 삶이었습니다.

분명히, 인간 수준에서 그는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력을 어느 정도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책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 시대 초기에도 이스라엘 편에 계속 가시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이때 확실히 블레셋 사람들의 등을 꺾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28회기, 사사기 13-16장, 삼손입니다.